

성매매방지법 4년 흉등은 꺼졌지만... (상) 활개치는 변종 성매매

주택가·오피스텔까지... '은밀한 성거래' 불 밝힌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이 오는 23일 시행 4년을 맞는다. 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등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성매매 집결지(집창촌)도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성매매 현 주소와 대책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던 지난 15일 밤 광주시 서구 삼부지구 한 오피스텔 앞 주변에는 온통 유흥업소를 알리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반짝이고 있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주차 차량과 인도는 신중안마업소와 출장 안마서비스업소가 뿌린 반라여성의 낯뜨거운 광고전단지 천지였다. 안마업소를 홍보하는 대형 전광판을 탑재한 1t 트럭 20여대도 성매매를 유혹하며 도로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술을 잔뜩 마신 30대 후반의 남성 3명이 오피스텔 부근에서 서성거렸다. "휴일이라 아가씨가 없어서 3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들은 속직 2차(성매매)를 나가기 위해 업소들과 접선중이었다. 그러나 이 오피스텔에는 '허브샵'이나 '스프츠마사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간판이 전혀 없었다. 이

들이 들렸었던 오피스텔 문을 두드려보았다. 일반 오피스텔에 간막이를 쳐놓고 안마를 하는 불법·변태 업소였다. 오피스텔 안에서는 아가씨 2~3명이 목욕용품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들고 간막이 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이 업소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안마를 받으러 왔느냐"고 말을 붙였다. "단속 나오지는 않나요"라고 되물었더니 "주로 단골손님과 입소문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라 괜찮다"고 답했다. 그는 또 "출장 연애(성매매)도 가능하니까 한번 연락을 달라"며 핸드폰이 적힌 명함형 전단지들을 건넸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 즉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면서 공공연한 성매매는 줄어든 반면, 피부관리실, 허브샵, 스포츠 마사지 등 변종 성매매 업소

는 급증했다. 성매매 행태가 법 시행 이후 은밀하고 지능적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 신흥 유흥가를 중심으로 허브샵 등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더 날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도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 주택가와 오피스텔 등지까지 성매매 업소가 파고들어 단속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김남희 여경이 동수사대장은 "성매매 업소들이 날로 지능화, 음성화 돼가고 있다"이라며 "일반 업소는 방문점검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 등의 영업장은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단속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김난희 소장은 "단속기관이나 여성단체들도 집결지 중심으로 이뤄지던 성매매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도심에서 활개치는 신종 성매매 업소들의 경우는 업소 수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종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성구매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한기자 ahj@kwangju.co.kr

“연애 한번 못해본 노총각 정상 참작”

여성 속옷 절도범 징역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30대 노총각 절도범에게 법원이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8일 여성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기소된 장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가 3차례 있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

러나 피해폭이 전부 여자 속옷으로 금전적 가치가 큰 것이 아니고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35세인데도 아직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보지 못한 점 등 동종범 만만 처지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1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주택에 열린 기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여성속옷 15점을 훔치는 등 이 집에서만 6차례, 다른 집에서 1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 네모녀 변사체 외상 흔적 없어

지난 2003년 4월 실종된 뒤 5년여 만인 17일 담양군 대전면 대이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모(여·실종 당시 31세)씨와 딸 이모(당시 7세)양 등 모녀 4명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8일 “변사체가 기실 창문을 넘어 들어가 여성속옷 15점을 훔치는 등 이 집에서만 6차례, 다른 집에서 1차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속옷과 치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이주여성 등친 ‘추한 한국인’

화마에 남편·시어머니 잃고 홀로 되자 결혼 알선업체 대표가 전 재산 가로채

생활고를 비판한 남편의 방화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이 전 재산을 자신의 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체 대표에게 빼앗겨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담양의 한 농부와 결혼한 캄보디아 출신 T모(여·21)씨, 남편 김모씨는 T씨보다 25살이나 많았지만, 성실하고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어려웠지만 단란한 가정은 지난해 11월 산산조각났다. 생활고를 비판하던 남편 김씨가 집에 등유를 뿌리고 동반자살을 기도하면서 T씨의 ‘코리아 드림’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T씨는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간신히 화마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숨졌다. 이력만리 낯선 땅에 의지할 곳 없던 T씨는 갓난 아이와 함께 외로움과 정신적·육체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 그래서 찾아가던 곳이 자신의 결혼을 알선해준 중개업체 대표 이모(여·42)씨였다. 이씨는 광주시 북구 각화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자며 효의를 베풀었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씨는 T씨가 남편의 형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목돈이 있는 사실을 알고 “돈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한다”면서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뒤 50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 지난 2월에는 T씨가 2천694㎡ 농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지금

땅을 팔지 않으면 값이 내린다”며 땅을 대신 팔아주고 받은 땅값 3천350만원 가운데 2천15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T씨의 재산을 다 빼돌린 뒤 T씨에게 다른 한국인과의 재혼을 제의했지만 거절당하자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T씨는 현재 결혼이민자 지원시설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폐렴을 앓고 있는 아들의 건강문제와 정신적 충격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다문화가정 지원 시민단체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를 벌여 18일 이씨를 절도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 박재권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중매한 결혼 이민자를 상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요즘 급증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형업소 화재 추모식

전국 1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민들레 순례단’과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은 1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지난 2005년 발생한 유형업소 화재사건 희생자 추모식을 가졌다. 행사는 지난 2005년 11월 화재가 난 유형업소 밀집지역인 속직 ‘1003번지’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결의대회 방해한다” 농민들, 전남도·농협 비난

농민들이 19일 전국적으로 농작물 출하거부 결의대회를 갖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전남도와 농협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박준영 전남지사가 농민들의 긴급구제대책 요구

를 외면하고 있고 농협은 결의대회 지원 금지를 내용으로 한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며 박 지사와 농협을 싸잡아 비난했다. 농협 전남본부가 지난 12일자로 발송한 이 문서는 “결의대회를 지원할 경우 물품,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 경찰이 결의대회 강경대응 방

침을 밝혔고 관련자 및 지원단체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연맹은 “결의대회는 경찰이 허가를 내준 합법적인 집회인데 이를 지원하는 지역농협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연맹은 19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출하거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7606) 김중두



다중의 건축·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행

“모텔 가지” 숙인 뒤 성폭행 모면 ○10대 강도에게 금품을 빼앗긴 뒤 성폭행을 당할 뻔한 20대 여성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화를 모면. ○1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여·22)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를 든 이모(17)군에게 현금과 금목걸이 등 27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긴 뒤 인근 산책로로 끌려갔다는 것. ○A씨는 산책로에서 범인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으나 이군에게 “모텔로 가지”며 숙인 뒤 동구의 한 모텔까지 갔다가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주. ○A씨는 경찰에서 “무서웠지만 침착함만 잃지 않으면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군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ooyou Travel' (조이 여행사)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Listings include properties in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with prices ranging from 249,000 to 999,000 KRW. The ad also includes a section for 'Jooyou Travel' services and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or rent.